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513

JCCT 2023-1-62

##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Dual job Worker

장덕진\*, 공하성\*\*

DEOK-JIN JANG\*, HA-SUNG KONG\*\*

**요약** 경제적 사유 및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부업을 택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 이상인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근로환경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원시자료로 활용하여 부업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노동력 구조, 물리적 환경, 정서적 환경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업의 종사자 지위에 따라 주관적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업 근무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과 더불어 물리적으로는 장기간 지속되는 반복 업무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는 차별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있어 중요함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주요어** : 근로환경조사, 겸직, 부업, 스트레스,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

**Abstract** Today more and more workers choosing dual(side) jobs due to economic reasons and self-development. Although the importance of working environments and individual life quality of workers, research on the health of dual job worker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ree aspect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dual job workers. As a result, it was statistically verifi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jective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main job, an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the main job. Also, it was found that it is important not to provide physically performing repetitive tasks for a long time, and not to provide emotionally discriminatory experiences.

**Key words** : Worker Environment Survey, Side Job, Dual Job, Stress, Health Status, Subjective Health

## 1. 서론

금전적 문제 또는 자기계발 및 취미 등의 목적으로 흔히 '투잡', '듀얼잡'이라 불리는 부업종사 근로자의 수가

\*정회원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8월 10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로부터 근로 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제공 받아 수행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ceived: August 10, 2022 / Revised: November 17,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Corresponding Author: 119wsu@naver.com

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Woosuk Univ, Korea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업종사 근로자는 외국에서 ‘Side Job, Dual Job, Two Job’으로 불리는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겸직 또는 겸업 등의 한자어로 많이 표현되는데 2021년 말 기준 부업 근로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9%에 해당하는 55만 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마이크로 데이터 (2021)에 따르면 부업종사 근로자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 2009년 및 2010년에 두자리수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며 일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2021년 기준 부업종사 근로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35만 7,000명이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20만 1,000명으로 이는 단순히 하나의 집단 또는 하나의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부업 종사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세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업 종사자와 관련된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 둘째, 부업 종사자의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존 연구의 경우 주로 노동과 부업 종사자 계층적 특성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지 않은 경제활동인구가 초과 수입을 위해 추가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업종사라는 것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부업종사 근로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1~3%에 불과한 점으로 인해 부업종사 근로자에 대한 산업 및 보건안전분야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부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Shishiko와 Rostker(1976)은 본업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가 추가 수입을 위해 부업을 한다고 보았다. 둘째, Paxson와 Sicherman(1996)은 개인의 주 수입원은 본업이며 부업은 본업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맥 형성, 전문훈련, 명성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포트폴리오 모델로 이야기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부업종사 근로자 안에서도 부업을 하는 이유와 상황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업종사 근로자들이 본업만 종사하는 근로자 대비하여 평균 임금이 70~80%라는

전체적인 수치에 기반하여 생계형으로 일반화하여 구체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부업종사 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상태 등을 살펴본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부업과 관련된 연구의 주요 관심 및 방향은 노동 및 계층 분석의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대표적으로 부업 종사자의 특징과 부업에의 결정 원인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최효미(2005)는 ‘투잡’이라는 용어의 발생 이후 부업 계층의 특징을 조사하여 부업계층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거나 3차 산업 중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부업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고령자와 저학력자 비율이 높음을 안내하였다. 임용빈과 최형재(2017)는 기혼자가 부업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그 결정요인을 조사하여 주업의 일자리 안정성이 하락할수록 부업 참여 확률이 높아지고 부업 임금이 증가할수록 부업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려는 특성을 통해 부업 근로자의 비자발적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자 하는 특성에 대해 수치로 밝혀냈고, 임용빈(2021)은 더 나아가 연령대별 부업참가자의 특징에서 우리나라의 부업 참가 비율은 1.6~2% 수준이며 참가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의 참여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음을 밝히고 있다. 종합적으로 기존 연구의 주요 흐름은 우리나라 부업 종사자의 노동자적 측면 및 계층적 측면에서의 조명이 많았다.

그러나 부업은 기본적으로 건강 측면에서 개인의 적정 노동시간 대비 ‘초과근무’를 수반하므로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윤희 외 2인(2017)은 초과근무·야간근무 그리고 우울이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박희진 외 3인(2021)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관계 갈등 등은 사고와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부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좋지 않을 것임이 예상되는 바로 이를 그대로 두는 경우 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부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 이재희와 김영선(2014)이 부업종사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부업종사 근로자는 부업이 없는 근로자 대비하여 평균 0.9번 정도 결근이 더 많아 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함을 통계로 검증한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업 종사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건강적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본업에서의 노동력 구조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여 제6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기반으로 그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연구 설계

### 1.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부업 종사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를 비교하고,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본업에서의 노동력 구조와 환경적 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문제1. 부업의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 2) 연구문제2. 부업종사 근로자의 노동력 구조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 3) 연구문제3.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업 환경 요인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 2. 분석 방법

첫째, 부업종사 근로자의 특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을 활용한 기술통계를 실시한다.

둘째, 부업종사 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주업 환경 요인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 2.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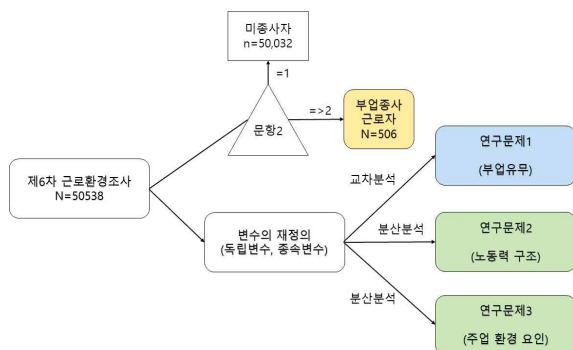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설계  
 Figure 1. Research model design

### 3. 연구 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 50,0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환경을 수집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6차 근로환경조사(2020)를 원시자료로 한 2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제6차 근로환경조사는 2020년~2021년에 수행된 조사로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해 1:1 면접을 통해 취업자 특성, 건강 상태, 위험요인 노출 상태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받았다.

조사에서는 복합표본설계기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여 표본을 모집하였으며, 설계가중치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조정을 시행하여 응답자별 최종 가중치를 구해 곱하여 오차를 줄였으며 지역 및 지역 크기, 주택 유형을 고려한 층화추출을 시행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일반성을 높이고자 했다.

연구의 대상은 전체 50,538명의 응답자 중 '문항2. 부업의 유무'에서 2개의 일을 하는 484명, 3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22명을 합한 506명으로 정하였으며 이하 사용되는 변수 역시 부업의 유·무에 따른 이분형으로 조작하여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부업종사 유무	부업 미종사자	50,032	99.0	
	부업종사 근로자	506	1.0	
주업 근로 형태	부업 미종사자 (n= 50,032)	상용근로자	49,780	99.5
		임시·일용직	252	0.5
	부업종사 근로자 (n= 506)	상용근로자	500	98.8
		임시·일용직	6	1.2
연령별 특성	부업 미종사자 (n= 50,032)	10대	151	0.4
		20대	4,663	9.3
		30대	8,577	17.1
		40대	10,998	21.9
		50대	12,444	24.8
		60대	8,321	16.7
		70대 이상	4,878	9.8
	부업종사 근로자 (n= 506)	10대	2	0.4
		20대	27	5.4
		30대	47	9.3
		40대	83	16.5
		50대	105	20.7
		60대	113	22.3
		70대 이상	129	25.4
부업의 정기성 (n= 506)	정기적 부업	265	52.4	
	비정기적 부업	225	44.5	
	혼합형(정기적+비정기적)	9	1.8	
	잘 모르겠다.	7	1.3	

시행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응답한 부업종사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 대비 1% 정도로 나타났다. 연령대 분포에서는 조사 응답자의 전체 인구 비율과 달리 50대 이상에서 부업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업 종사자가 점점 많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부업종사 근로자 중 정기적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은 265명(52.4%),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225명(44.5%), 정기적인 일과 비정기적인 일을 모두 하는 사람은 9명(1.8%)으로 나타났고 무응답 및 거절한 사람은 7명(1.3%)이었다.

4. 용어의 재정의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근로자의 본업에서의 노동력 구조’와 ‘환경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로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지정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에서의 변수 용어 정의를 위해 근로환경조사 설문 문항에 있는 변수를 <표 2,>와 같이 정의했다.

표 2. 용어의 정의  
Table 2. Definition of terms

변수 종류	근로환경조사 변수명	용어의 재정의	
독립 변수	[문항5] 종사상의 지위 [문항6] 고용 형태	근로자의 노동력 구조	
독립 변수	[문항77] 근로환경 만족도	전체 근로 환경 만족도	환경 요인
	[문항29] 업무적 환경	물리적 환경	
	[문항64] 차별유무 [문항72] 언어폭력 및 정신피로힘	정서적 암시적 환경	
종속 변수	[문항67]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 [문항68] 만성질환여부	건강 인식	주관적 건강 상태
	[문항70]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상태	
	[문항71] 수면(정신적)	정신적 건강 상태	

III. 연구 결과

1. 부업 종사 여부에 따른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부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현황을 나타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부업 종사 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ption by Dual job(Side job)

구분		부업 미종사자		부업종사 근로자				
		n	%	n	%			
전체		$\chi^2$	p	50,032	100	506	100	
건강 인식	주관적 건강 인식	긍정	110.434 ***	0.000	32,887	65.7	258	50.9
		보통			14,272	28.5	167	33.1
		부정			2,873	5.8	81	16.0
	만성 질환	있다	158.851 ***	0.000	5,536	11.0	146	28.9
		없다			44,496	89.1	360	71.1
	신체적 건강	요통	있다	70.229 ***	0.000	15,887	31.9	249
없다			34,145			68.1	257	50.8
상지 근육통		있다	50.808 ***	0.000	17,778	35.5	257	50.8
		없다			32,254	64.5	249	49.2
하지 근육통		있다	84.056 ***	0.000	10,359	20.7	189	37.3
		없다			39,673	79.3	317	62.7
두통·눈의 피로		있다	2.565 0.109	0.109	9,473	18.9	110	21.7
		없다			40,559	81.1	396	78.3
불안감		있다	10.685 ***	0.001	2,850	5.7	46	9.0
		없다			47,182	94.3	460	91.0
전신 피로		있다	16.077 ***	0.000	13,427	26.8	176	34.8
		없다			36,605	73.2	330	65.2
정신적 건강	수면 장애 요소	있다	46.476 ***	0.000	6,226	12.4	114	22.5
		없다			43,806	87.6	392	77.5
	수면 장애 요소	있다	41.682 ***	0.000	7,724	15.4	131	25.9
		없다			42,308	84.6	375	74.1
	수면 후 장애 요소	있다	31.775 ***	0.000	9,902	19.8	151	29.8
		없다			40,130	80.2	355	70.1

\*p<.05, \*\*p<.01, \*\*\*p<.001

부업 종사 여부에 따른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비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의 각 요소별 단순 인식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부업 미종사자에 비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대부분 요소에 대해 미종사자 대비 더 많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업 종사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건강에서 ‘두통·눈의 피로’를 제외한 모든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업의 존재 유무는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노동력 구조가 부업 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부업종사 근로자의 노동력 구조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후 분산분석을 적용했다. 먼저 부업종사 근로자의 노동력 구조 기술통계는 <표 4>와 같다.

표 4. 부업 종사 근로자의 노동력 구조  
 Table 4. The labor structure of Dual job(Side job) worker

구분	노동력 구조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고용 형태 (전체 대비)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부업 종사	301 (59.5%)	205 (40.5%)	99 (19.6%)	79 (15.6%)	27 (5.3%)
부업 미종사	17,174 (34.3%)	32,858 (65.7%)	25,186 (50.3%)	5,776 (11.5%)	1,896 (3.8%)

부업 종사자의 노동력 구조를 살펴본 결과,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가 301명(59.5%) 임금근로자가 205명(40.5%)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고용 형태로는 상용직 99명(19.6%), 임시직 79명(15.6%), 일용직 27명(5.3%)로 조사되었다.

부업 미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 구조는 비임금근로자가 17,174명(34.3%), 임금근로자가 32,858(65.7%)로 부업 종사 근로자와 차이를 나타냈다. 비임금근로자일수록 부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 고용 형태 역시 부업종사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도 부업종사 근로자의 노동력 구조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각각 분산분석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표 5>와 <표 6>으로 나타냈다.

### 1) 종사상 지위

표 5. 종사상 지위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 of occupational status on subjective health status

종속 변수	집단구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F	p
건강 인식	비임금근로자	301	1.89	0.89	4.558*	0.033
	임금근로자	205	1.72	0.89		
만성 질환	비임금근로자	301	1.65	0.47	11.981**	0.001
	임금근로자	205	1.80	0.40		
요통	비임금근로자	301	1.44	0.49	14.661***	0.000
	임금근로자	205	1.61	0.48		
상지 근육통	비임금근로자	301	1.43	0.50	13.587***	0.000
	임금근로자	205	1.59	0.49		
하지 근육통	비임금근로자	301	1.55	0.49	16.783***	0.000
	임금근로자	205	1.73	0.44		
두통·눈의 피로	비임금근로자	301	1.78	0.41	0.009	0.924
	임금근로자	205	1.78	0.41		
불안감	비임금근로자	301	1.90	0.30	1.310	0.253
	임금근로자	205	1.93	0.26		
전신 피로	비임금근로자	301	1.63	0.48	1.928	0.166
	임금근로자	205	1.69	0.46		
수면 장애	비임금근로자	301	1.74	0.43	4.902*	0.027
	임금근로자	205	1.82	0.38		
수면 장애 요소	비임금근로자	301	1.70	0.45	5.274*	0.022
	임금근로자	205	1.80	0.43		
수면 후 장애 요소	비임금근로자	301	1.67	0.46	2.621	0.106
	임금근로자	205	1.74	0.43		

\*p<.05, \*\*p<.01, \*\*\*p<.001

### 2) 고용형태

표 6. 고용형태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employment type on subjective health status

종속변수	집단	표본	평균	표준 편차	F	p
건강 인식	상용근로자	99	1.64	0.909	0.837	0.435
	임시근로자	79	1.81	0.863		
	일용근로자	27	1.74	0.944		
불안감	상용근로자	99	1.93	0.258	0.344	0.709
	임시근로자	79	1.94	0.245		
	일용근로자	27	1.89	0.320		
전신 피로	상용근로자	99	1.68	0.470	0.136	0.873
	임시근로자	79	1.71	0.457		
	일용근로자	27	1.67	0.480		
수면 전 장애요소	상용근로자	99	1.85	0.360	0.400	0.671
	임시근로자	79	1.80	0.404		
	일용근로자	27	1.81	0.396		
수면 중 장애요소	상용근로자	99	1.81	0.396	0.294	0.746
	임시근로자	79	1.80	0.404		
	일용근로자	27	1.74	0.447		
수면 후 장애요소	상용근로자	99	1.74	0.442	0.010	0.990
	임시근로자	79	1.75	0.438		
	일용근로자	27	1.74	0.447		

\*p<.05, \*\*p<.01, \*\*\*p<.001

종사자의 지위에 따라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별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종사자의 지위에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F=4.558, p<.05), 만성질환(F=11.981, p<.01), 요통(F=14.661, p<.001), 상지근육통(F=13.587, p<.001), 하지근육통(F=16.783, p<.001), 수면 전 장애요소(F=4.902, p<.05), 수면 중 장애요소(F=5.274,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통 및 눈의피로, 불안감, 전신피로와 수면 후 장애를 느끼는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종사자의 지위에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수면 장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요인별 일부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별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성질환’,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눈의 피로’를 제거한 후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주업에서의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주업의 환경 요인이 부업 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업에서의 환경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주업에서의 환경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부업 종사 근로자의 주업에서의 환경 요인 통계  
Table 7. Environmental Factor in the Main Job of Dual Job Workers

구분		인원 (n=506)	비율 (100%)	
만족도	근로환경 만족도	389	76.9	
	그렇다	117	23.1	
물리적 환경	피로·통증자세	있다	131	25.9
		없다	375	74.1
	사람 이동	있다	12	2.4
		없다	494	97.6
	무거운 물건 이동	있다	102	20.2
		없다	404	79.8
	계속 선 자세	있다	261	51.6
		없다	245	48.4
	계속 앉은 자세	있다	260	51.4
		없다	246	48.6
	반복적 동작	있다	276	54.5
		없다	230	44.5
	고객 상대	있다	190	37.5
		없다	316	62.5
	분노 고객 상대	있다	30	5.9
		없다	476	94.1
불안한 상황	있다	14	2.8	
	없다	492	97.2	
정서적 환경	차별	있다	18	3.6
		없다	488	96.4
	정신적 폭력	있다	26	5.1
		없다	480	94.9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업에서의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76.9%의 사람들이 주업 근무 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1/4 정도의 사람들이 불만족한 상황에서 다니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무거운 사람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계속 반복되는 자세와 동작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으로 이미 주업에서 신체적으로 부하가 가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리적 환경 중 ‘고객 상대’, ‘분노 고객 상대’ 및 정서적 환경에서 회사 내에서 ‘정신적 폭력’ 및 ‘차별’을 겪는 비율 역시 높게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주업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물리적 환경

또는 정서적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부업 종사 근로자는 초과근무의 개념인 부업을 하면서 주관적 건강 상태를 나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각 환경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정된 만족도 측면에서 한 가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아홉 가지, 정서적 환경 측면에서 두 가지 요인들이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1) 주업 만족도

주업의 만족도에 따라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별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의 만족도에 따라서 주관적 건강 인식(F=15.429, p<.001), 만성질환(F=8.215, p<.01), 요통(F=3.967, p<.05), 상지근육통(F=4.095, p<.05), 하지근육통(F=9.864, p<.01), 불안감(F=3.884, p<.05), 전신피로(F=10.191, p<.01) 수면 전 장애요소(F=12.088, p<.01), 수면 중 장애요소(F=11.086, p<.01), 수면 후 장애요소

표 8. 주업 만족도가 부업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Table 8. Effects of main job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Dual job worker

종속 변수	집단	표본	평균	표준 편차	F	p
건강 인식	주업:만족	389	1.74	0.89	15.429***	0.000
	주업:불만족	117	2.10	0.86		
만성 질환	주업:만족	389	1.74	0.43	8.215**	0.004
	주업:불만족	117	1.61	0.49		
요통	주업:만족	389	1.53	0.50	3.967*	0.047
	주업:불만족	117	1.43	0.49		
상지 근육통	주업:만족	389	1.52	0.50	4.095*	0.044
	주업:불만족	117	1.41	0.49		
하지 근육통	주업:만족	389	1.66	0.47	9.864**	0.002
	주업:불만족	117	1.50	0.50		
두통· 눈의피로	주업:만족	389	1.79	0.40	0.829	0.363
	주업:불만족	117	1.75	0.43		
불안감	주업:만족	389	1.92	0.26	3.884*	0.049
	주업:불만족	117	1.86	0.34		
전신피로	주업:만족	389	1.69	0.46	10.191**	0.001
	주업:불만족	117	1.53	0.50		
수면전 장애요소	주업:만족	389	1.81	0.39	12.088**	0.001
	주업:불만족	117	1.66	0.47		
수면중 장애요소	주업:만족	389	1.78	0.41	11.086**	0.001
	주업:불만족	117	1.62	0.48		
수면 장애요소	주업:만족	389	1.74	0.43	12.330***	0.000
	주업:불만족	117	1.57	0.49		

(F=12.330,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통 및 눈의 피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통 및 눈의 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업 종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주업 만족도에 따라 부업종사 근로자는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표 8>을 통해 알 수 있다.

2) 물리적 환경 요인

주업에서의 물리적 환경 요인이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홉 가지 세부 요인들에 대해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첫째, 주업에서의 피로·통증 자세에 따라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별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한 결과 주업의 반복적 피로·통증 자세는 만성질환(F=10.285, p<.01), 요통(F=28.267, p<.001), 상지근육통(F=17.798, p<.001), 하지근육통(F=14.733, p<.001), 전신피로(F=9.603, p<.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업에서 피로한 자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체적 피로를 많이 느낀다는 일반적 통념과 일맥상통하며 이를 통해 주업의 피로·통증 자세는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중 신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차이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신적 영역에서는 피로·통증 자세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주업에서의 사람 이송 업무에 따라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별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 사람을 들어서 옮기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만성질환(F=5.015, p<.05), 전신피로(F=5.547,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는 사람 이송 업무의 지속성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업의 사람이송 업무는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중 만성질환과 전신피로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반면 대부분

건강 요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주업에서의 무거운 짐을 자주 나르는 업무에 따라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별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 무거운 짐을 오랜 시간 옮기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요통( $F=9.504$ ,  $p<.01$ ), 상지근육통( $F=10.055$ ,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주관적 건강 요소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주업에서 무거운 짐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업무는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중 요통과 상지근육통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반면 대부분 건강 요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주업에서의 장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별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산분석법을 실시한 결과 주업에서 오랫동안 서서 근무하는 부업 종사자는 하지근육통( $F=5.329$ ,  $p<.05$ ), 두통 및 눈의 피로( $F=22.888$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주관적 건강 요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업에서 서서 오래 근무하는 부업종사 근로자는 하지근육통과 두통 및 눈의 피로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주업에서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부업종사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 변수별 평균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 대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부업종사자는 두통·눈의피로( $F=16.327$ ,  $p<.001$ ), 수면 전 장애요소( $F=4.041$ ,  $p<.05$ ), 수면 중 장애요소( $F=4.735$ ,  $p<.05$ ), 수면 후 장애요소( $F=14.592$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주관적 건강 요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업에서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부업종사 근로자는 두통 및 안구피로, 수면에 있어서 문제점을 겪을 확률이 평균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주업에서의 반복적 동작이 부업종사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 반복적 동작을 하는 부업종사자는 주관적 건강인식( $F=8.785$ ,  $p<.01$ ), 만성질환( $F=10.573$ ,  $p<.01$ ), 요통( $F=35.197$ ,  $p<.001$ ), 상지근육통( $F=34.352$ ,  $p<.001$ ), 하지근육통( $F=42.286$ ,  $p<.001$ ), 전신피로( $F=9.122$ ,  $p<.01$ )에서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주업에서 반복적 동작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신체적인 건강 상태 인식에서 유의한 문제점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주업에서 고객을 대면하여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업종사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부업종사 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서 어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 고객을 대면하여 업무를 하는 부업 종사자는 주관적 건강인식( $F=13.707$ ,  $p<.001$ ), 만성질환( $F=20.255$ ,  $p<.001$ ), 요통( $F=24.740$ ,  $p<.001$ ), 상지근육통( $F=10.502$ ,  $p<.01$ ), 하지근육통( $F=19.663$ ,  $p<.001$ )에서 그렇지 않은 부업종사 근로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요소에서는 대면하여 고객을 만나지 않는 근로자와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여덟째, 부업종사 근로자가 주업에서 분노한 고객들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이 그렇지 않은 부업종사 근로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 분노한 고객들을 주로 응대하는 부업 종사자는 요통( $F=6.542$ ,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외 모든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주업에서 분노한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아홉째,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업이 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는 부업종사 근로자는 주관적 건강인식( $F=5.173, p<.05$ ), 두통·눈의피로( $F=10.792, p<.01$ ), 불안감( $F=20.59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외 다른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못했으나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직업은 불안감과 두뇌 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 정서적 환경 요인

주업에서의 물리적 환경 요인이 부업종사 근로자의 정서적 환경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두 가지 세부 요인들에 대해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첫째,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업에서 정신적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비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주업에서 정신적 폭력은 부업 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둘째, 부업종사 근로자가 주업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비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각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업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부업종사 근로자는 만성질환( $F=4.082, p<.05$ ), 하지근육통( $F=4.525, p<.05$ ), 불안감( $F=3.909, p<.05$ ), 수면 전 장애요소( $F=11.891, p<.01$ ), 수면 중 장애요소( $F=12.314, p<.001$ ), 수면 후 장애요소( $F=12.314,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외 다른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못했다. 이는 직장 내의 차별 경험이 근로자의 정신적(수면) 및 일부 신체적 요소에 유의미한 차이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IV. 결론 및 제언

개인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부업을 택하는 근로자들이 점차 많아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주업에서의 성실성이라는 도덕적 판단과는 예외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므로 주관적 건강 인식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본업만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모두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업종사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았다. 부업에 종사하지 않는 50,032명과 부업에 종사하는 506명을 대상으로 제6차 근로환경조사의 조사 대상에 있는 12가지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두뇌·눈의 피로’를 제외한 모든 11가지에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부업의 존재 유무는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업 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개별 영향 요인을 노동력 구조, 및 환경 요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먼저 부업 종사 근로자의 ‘노동력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의 지위에 따라 부업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 인식( $F=4.558, p<.05$ ), 만성질환( $F=11.981, p<.01$ ), 요통( $F=14.661, p<.001$ ), 상지근육통( $F=13.587, p<.001$ ), 하지근육통( $F=16.783, p<.001$ ), 수면 전 장애요소( $F=4.902, p<.05$ ), 수면 중 장애요소( $F=5.274, p<.05$ )등 7가지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고용 형태에 따라 부업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모든 요소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부업 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있어 노동력 구조는 종사자의 지위에 따라 일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주업에서의 환경 요인이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크게 ‘근로환경만족도’, ‘물리적 환경’, ‘정서적 환경’으로 환경의 세 측면에서 영향 인자를 탐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업의 근로환경만족도에 따른 부업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 인식( $F=15.429, p<.001$ ), 만성질환( $F=8.215, p<.01$ ), 요통( $F=3.967, p<.05$ ), 상지근육통( $F=4.095, p<.05$ ), 하지근육통( $F=9.864, p<.01$ ), 불안감( $F=3.884, p<.05$ ), 전신피로( $F=10.191, p<.01$ ) 수면 전 장애요소( $F=12.088, p<.01$ ), 수면 중 장애요소( $F=11.086, p<.01$ ), 수면 후 장애요소( $F=12.330, p<.001$ ) 등 11가지 중 10가지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두통·눈의 피로’는 부업 종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업에서의 물리적 환경이 부업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적 환경 요인 아홉 가지를 각각 적용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피로·통증 자세’는 만성질환,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전신 피로 등 다섯 가지 건강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업무상 사람 이송’은 만성질환, 전신피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무거운 짐 운반’은 요통, 상지근육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오래 서서 근무’는 하지근육통, 두통·눈의피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오래 앉아 근무’는 두통 및 눈의 피로, 수면 전 장애요소, 수면 중 장애요소, 수면 후 장애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복적 동작’은 주관적 건강 인식, 만성질환,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전신 피로 총 여섯 가지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고객상대업무’는 주관적 건강인식, 만성질환,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분노고객 상대업무’는 요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불안상황지속’은 주관적 건강인식, 두통 및 눈의피로, 불안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주업에서의 물리적 환경 요인은 부업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주업에서의 정서적 환경 요인이 부업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적 환경 요인을 재정의하여 두 가지로 조사한 결과 주업 공간에서 정신적 폭력 경험은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주업 공간에서 차별 경험은 만성질환, 하지근육통, 불안감, 수면 전 장애요소, 수면 중 장애요소, 수면 후 장애요소 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력 구조의 측면에서 종사자의 지위에 따라 주관적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환경적 요소에서는 근무 만족감을 높여 주는 것과 물리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반복 업무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차별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부업 종사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영역별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부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 내외로 무시할만한 수치가 아니며 전 세계 평균 대비로는 낮은 수치로 앞으로 부업 종사 근로자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부업종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전업 근로자 대비하여 건강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태로 이로 인해 국가 전체 근로 환경 하락 및 삶의 질 악화 역시 예상된다. 특히 부업에 종사하는 것을 본업에 충실치 못한다는 인식 속에 부업종사 근로자에 대한 노동계에서의 관심과 산업안전 측면에서의 고려가 부족하다.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대처 및 지원 시스템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장춘옥, 2019). 따라서 부업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근로임을 인정하고 본업과의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업종사 근로자의 건강 악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업종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부업종사 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핀셋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부업종사 근로자들의 건강의 질 악화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더불어 전체적인 직장에서의 물리적 환경, 정서적 환경, 근로 구조를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부업종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낙수효과를 실현한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원시자료 그대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의도대로 변수를 재정의하여 가공하였으며 실제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포괄적 변인들을 모두 담지 못해 단편적인 연구 설계가 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 관련 국가통계인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부업종사 근로자에 대해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며 국가 수준의 체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일반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부업에 대한 관심과 부업참여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부업종사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업의 관점에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Employment Trends Microdata.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ClsOfrData.do?curMenuNo=UL\\_POR\\_P9210](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ClsOfrData.do?curMenuNo=UL_POR_P9210), 2021.
- [2] Shishko, Robert, and Bernard Rostker. “The economics of multiple job hold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6.3 pp. 298–308. 1976.
- [3] Paxson, Christin, and N. Sicherman. “The dynamics of dual job holding and job mobi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3 pp. 357–393, 1996.
- [4] H.M. Choi. “Characteristics and actual status of dual-job class.”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pp. 63–73, 2005.
- [5] Y.B. Im, H.J. Choi, “Determinants of Moonlighting: the Case of the Married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0(2), pp. 31–68, 2017.
- [6] Y.B. Im,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Side Job by Age Group and Relationship with Main Job,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pp. 91–95, 2021.
- [7] Y.H. Park, D.H. Chae, S.H. Kim, “The Effects of Overtime Work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Korean Blue-Collar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pp. 199–208, 2017.
- [8] H.J. Park, M.J. Jeong, R.N. Jeong, and J.H. Heo, “Correlat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afety Behavior of Distribution Center Worker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4, pp. 155 - 161, Nov. 2021. <https://doi.org/10.17703/JCCT.2021.7.4.155>
- [9] J.H. LEE, Y.S, Kim, “Effect of side job on workers health”,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1) Confernece, p385, 2014.
- [10] C.O. Jang, “A Study on Mediation Effect of Support System in Job Stress and Coping Behavior of Social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 14 - 19, Mar. 2019. <https://doi.org/10.17703/IJACT.2019.7.1.14>